

車·반도체 등 경영환경 긍정 평가 경제계 “실질적인 성과 창출 최선”

통상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K-기업 수출경쟁력 개선 기대

한경협 “양국 공동번영 원칙 확인”
상의 “첨단산업분야 협력 청신호”
경총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29일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그동안 한국경제를 짓눌러왔던 통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에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결정이 늦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졌던 반도체 업계도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르면 내달 1일 관세 인하… 한숨 돌린 산업계

국내 완성차 업체는 이번 협상 타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는 시점은 이르면 11월 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에 적용됐던 방식대로 한국 측이 협상내용을 이행하는 법적 절차를 개시하면 해당 월의 첫날부터 관세를 소급해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0% 품목관세’ 리스크를 떠안고 있던 반도체 업계도 관세 부담을 한시름 벗어나게 됐다. 현재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대만과 견주었을 때 불리하지 않



3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은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타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만과 최소한 같은 수준을 보장받은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 만큼 세부적인 관세 적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앞서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TSMC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경제단체 관세 협상 타결 환영

국내 경제 단체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논평을 통해 “양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달성한 중요한 외교·경제 성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

확인시켰다”고 환영했다. 한경협은 “미래 산업 협력 기반 확장, 첨단기술·조선·에너지 등 전략 분야 공동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한미 경제 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도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미 무역,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분야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와 기술교류, 인적교류 등의 협력이 한단계 더 공고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한 데 대해 경총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합의가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며,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양성운·차현정 기자 ysw@metroseoul.co.kr

조선업 중심 산업협력 강화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 시동

조선업계, 일제히 환영의 뜻 밝혀
“미국 내 조선 생태계 복원 적극 참여”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합의하면서 조선산업 부활을 상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마스가(MASG 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미국의 산업 재건 전략이 맞물리며 양국이 사실상 산업 동맹 수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결렬 우려가 제기됐던 한미 관세협상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3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율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중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부분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마스가는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한미 양국의 전략적 산업 동맹으로 격상됐다. 조선 협력 투자에는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뿐 아니라 선박금융과 보증이 포함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선박금융을 통한 장기 자금 조달 구조로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크게 높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과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이 결합된 상징적 프로젝트다. 미국이 조선산업 기반을 복원하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수출하는 형태로 맞물리며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APEC CEO 서밋특별연설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조선국가으로 필라델피아 조

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조선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배를 짓기 시작하고, 미국의 번영은 동맹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이후 국내 조선업계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국 내 조선 생태계 복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HD현대는 이미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 헨팅턴 잉글스(HII)와 상선·군함 설계 및 건조 협력 양해각서(MOA)를 체결했고, 미 해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에도 참여한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미국 조선소 인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AI와 자율운항, 친환경 기술을 결합한 미래 조선의 표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화 역시 미국 AI 자율운항 기업 해빅AI(HavocAI)와 손잡고 글로벌 해양무인체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거점으로 ‘K조선의 미국화’ 전략을 추진하며 마스가 핵심 기업으로 부상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 내 조선·제조업 부활을 위한 기술 파트너가 필요했고, 한국은 관세 인하와 투자 안정성을 통해 수출 기반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선박 수요와 한국의 고부가 기술력이 결합하면 조선업 전반의 수주 파이가 커진다”며 “국내 조선소의 고용과 기자재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PEC 2025
KOREA



KOREAN AIR

함께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 목적지로

Together with APEC 2025 KOREA

같은 꿈을 향해 대한민국에 오신 세계 정상들을 환영하며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한항공이 응원합니다

